

## 이슬람풍 패션에 관한 연구

김정아 · 정현남 · 엄혜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 A Study on the Fashion of Islamic Image

Joeng-a Kim · Hyeon-nam Jeong · Hea-jung Yum

Dept. of Clothing & Textiles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4. 3. 8.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read the public recognition for the style of Islamic dress has been ignorantly left and provide this as the basic data for Islamic fashion design. This treatise restricts the Islamic scope into the southeast Asia and confuted the study referring to Islam related books, treatise,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magazines as well as newspaper articles, Internet and screen material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Commonly Islam as a term of religious scope means complex cultural body based on Islam.

1. The Islamic social and cultural images were categorized as ① conservative and sexual ② simple, static, decorative and rhythmical ③ dark, violent, bright and amusing image. 2. Islamic nations' style of dress was characterized ① surface decorative dress ② practical outer garment ③ trousers style. 3. Both men and women basically put on trousers in children's stories and animations. In case of women, they wear skirts and according a social standing, tunic and caftan style jackets. As for men and women, they both wear turbans or chadors but in particular, wealthy classes put on a distinguishable turbans and chadors with splendid accessories. 4. The characteristics of Islamic fashion are lace decoration around a sleeve and the waist or blouse and harem pants with a elastic cord. In addition, they are splendid necklace and ring earrings looking old, accessories with big pendants and dragging belts. These examples are shown in collections and streets.

**Key words:** Islam, The fashion of Islamic image, The style of Islamic dress; 이슬람, 이슬람풍 패션, 이슬람 복식 스타일

### I. 서 론

글로벌 시대라 일컬어지는 요즘, 한 사회의 정치 혹은 사회 문화적 사건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와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는 예가 종종 일어난다. 그리고 패션은 그 변화 양상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그 때까지와는 다른 스타일을 창조하기도 하고 새로운 패션 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그에 관한 뉴스가 연일 TV와 신문의 머리기사를 장식하였다. 그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한 가운데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열풍과도 같이 고조되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80여 종의 이슬람 관련 서적이 출판되고 대학에 이슬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였다(이희수, 이원

삼 외, 2003). 또한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와 미국을 향한 극도의 지적 편중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금까지 거의 무지 상태로 방치해 왔던 다양한 세계를 우리의 입장에서 재조명하자는 대중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이희수, 이원삼, 2003).

이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 영화나 뮤직 비디오 등에 이슬람을 이미지로 한 예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슬람 음식과 벨리 댄스(belly dance) 등이 붐을 이루기도 하였다.

패션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전투복에서 영향을 받은 복식 스타일이 유행해 왔듯이, 9.11 테러와 미국 이라크 전쟁 이후 국내외 패션 컬렉션에는 다양한 밀리터리 룩이 일제히 등장하여 전 세계가 이번 사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었다(이유순, 2003). 그러나 그 한편에는 전쟁과 테러 등 갖가지 사회 현상에 따른 불안 심리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 불안감이 극도로 팽배해진 사회에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불어넣고자 한 스타일도 나타났다. 이는 에스닉 룩, 특히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대한 큰 관심과 더불어 이라크전의 중심지인 이슬람 지역을 이미지로 한 스타일이 대거 등장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상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편협하며 무지하다. 특히 패션의 경우, 그 동안 그에 관한 연구가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범위도 고대복식(김문영, 조우현, 2003; 김민자, 류기주, 1992; 박금주, 1992; 이남희, 1978; 장영세, 2003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패션의 커다란 흐름으로 작용하는 에스닉 패션의 한 유형으로서 이슬람풍 패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우선 이슬람의 용어를 정의하고 이슬람 문화가 갖는 이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슬람 복식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최근 등장한 이슬람풍 패션의 유행배경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를 통해 이슬람 복식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이슬람풍 패션 디자인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이슬람 관련 문헌 및 연구 논문, 국내외 정기 간행물 기사, 인터넷, 영상 자료를 등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에 나타난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이슬람 복식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최근에 나타난 이슬람풍 패션의 분석을 위해서는 9.11 테러가

일어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를 연구시기로 하여 컬렉션 및 스트리트 패션 자료를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슬람의 개념

이슬람(Islam)이란 말은 아랍어 살리마(Salima)에서 파생된 명사로 ‘하나님께 대한 굴복, 또는 순종, 평화’를 의미한다(김동문, 2001). 이슬람교가 등장한 것은 7세기 초로, 예언자 무하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아 추종자들에게 ‘무슬림’ 즉 알라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번창할 것이라고 설교하면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종교적 의미에서의 이슬람이란 모든 물질운동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육신과 정신세계, 현세와 내세에서 동시에 얻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가리킨다(최영길, 2000).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슬람이란 종교로서의 이슬람이라기보다는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독자적인 문화복합체로서의 이슬람 문명권을 의미한다. 이 예는 총 56개국의 13억 인구가 이 문명권에 포함되며, 이들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이 오래된 역사와 폭넓은 범위를 갖는 이슬람 문명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이슬람은 아득히 먼 세계이다. 또한 그에 대한 상식 대부분이 서양식 관점에서 온 것으로 그 명칭조차 이슬람, 아랍, 중동, 아라비아, 서남아시아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용어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우선 아랍(Arab)이란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집단을 말하는 종족적 개념을 지니는 말로, 오늘날에는 이슬람교를 믿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인종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중동(中東)이란 19세기 말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구분해 놓은 지정학적인 전략개념의 말이다(정수일, 2002). 영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East’로 표현하면서 먼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를 극동(極東), 가까운 오른쪽 지방인 발칸반도와 그리스 지역 등을 근동(近東),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을 중동으로 분류했다. 현재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서쪽의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동부의 이집트, 때로는 리비아까지를 포함하여 중동이라고 부른다. 그 외에도 아라비아(Arabia)는 아시아 대륙 남서부에 위치하는 아라비아반도를 가리키는 지역적인 명칭인데 반해, 서남아시아는 명확한 지역의 명칭은 아니고 대체로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의 남서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위와 같이 이슬람, 아랍, 중동, 아라비아, 서남아시아는 유사한 지역 및 문화를 가리키면서도 그 의미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이슬람이란 문화 복합체로서의 이슬람 문명권을 지칭하는 말로서, 그를 통해 복식을 위시한 다양한 문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을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로 한정하였다.

## 2. 이슬람 문화의 이미지

이슬람 지역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오리엔트 등 인류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일신교를 잉태한 토양이다. 8세기 중반부터 12세기에 이르는 약 4백 년 동안 이슬람 문화의 발전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20세기 초까지 서구를 비롯한 세계 문명의 발전과 성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최영길, 2000). 역사적으로 이슬람문화는 여러 문화의 수용 및 혼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문화와 이질적인 상대에 대한 관용과 포용 정신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지혜였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에는 보편성과 국제성을 느낄 수 있으며, 김동문이 「이슬람의 두 얼굴」(2001)이란 서적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양면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이슬람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을 양면성이라 보고, 종교, 건축, 공예품 등과 같은 생활 문화 전반에 나타난 이미지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밖에 최근 패션 디자인의 이미지 발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애니메이션, 댄스 등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난 이슬람 이미지도 참고로 하였다.

### 1) Authentic(보수적인, 금욕적인) - Sexual(외설적인, 성적인)

우리가 이슬람 사회를 그려볼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차도르(chador)’를 둘러싼 여성의 모습을 통

해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슬람권 여성들은 초경이 시작된다는 13살이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집을 벗어날 경우 반드시 ‘차도르’를 착용한다(권삼윤, 2001). 이와 함께 ‘하렘(harem)’이라 불리는 여성 격리의 관습이 사회전반에 인식되어있다.

이 같은 여성의 베일쓰기와 여성격리의 관습은 이슬람 이전부터 이어내려 온 것으로 수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 집단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온몸을 덮는 것이 요구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베일은 여성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베일을 쓰지 않는 여성을 유혹의 원천으로 간주했던 보수적 시각에 기인한다(이희수, 이원삼, 2003).

그러나 이상의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와 반대로 이슬람 문화에는 외설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예로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아라비안 나이트」-아랍어로 천일야화, 즉 천 하룻밤의 이야기-는 원래 인도의 이야기가 주축이 된 것으로 페르시아를 거치며 많은 이야기가 변형되고 첨가·삭제되어 완성된 이야기이다(이희수 외, 2003). 아랍 문학뿐만 아니라 서구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이야기가 실은 곳곳에 외설적인 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에서는 창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무희(舞姬)들의 반나체에 가까운 옷차림의 모습은 여성의 성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한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 2) Simple(단순한, 정적인) - Decorative(화려한, 사치스러운, 동적인)

이슬람의 지형 조건은 약간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막에 대한 이미지는 적막함, 단조로움, 혹독한 더위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와 같은 것으로 대부분 정적인 이미지이다.

또한 이슬람 건축의 백미로 전 세계에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원, 즉 ‘모스크’ 역시 단순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한 예이다. 모스크의 내부는 메카의 방향을 나타내는 미흐라브가 설치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다(가토 히로시, 1948/2001). 이는 건축이 신자의 재산을 무익하게 낭비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더 복잡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다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예루살렘의 바위돔(691), 다마스쿠스의 대모스크(705), 사마라의 대모스크(846~852) 등이 초기 모스크의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슬람 제국 내 도처에 더 많은 모스크가 건립되면서 모스크의 장식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다. 예를 들면 반구형의 돔과 신자들을 예배로 불러 모을 때 사용하는 첨탑(minaret), 돌이나 벽돌로 안팎의 벽면을 화려한 색채의 장식타일로 덮는 스타일 등을 들 수 있다(Stewart, Desmond, 1998). 이스탄불의 아하마드 1세의 모스크(1609~1616), 이스파한의 마스지드샤(1612~1637) 등이 후기 모스크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슬람 지역은 유목생활에 익숙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공예품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하다. 도자기류와 카펫, 유리와 금속 공예품 등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중기에 들어 특히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란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발달했는데, 대부분 밝은 색상의 다양한 장식이 특징이다(조너선 볼름/셰일라 블레어, 1997/2003).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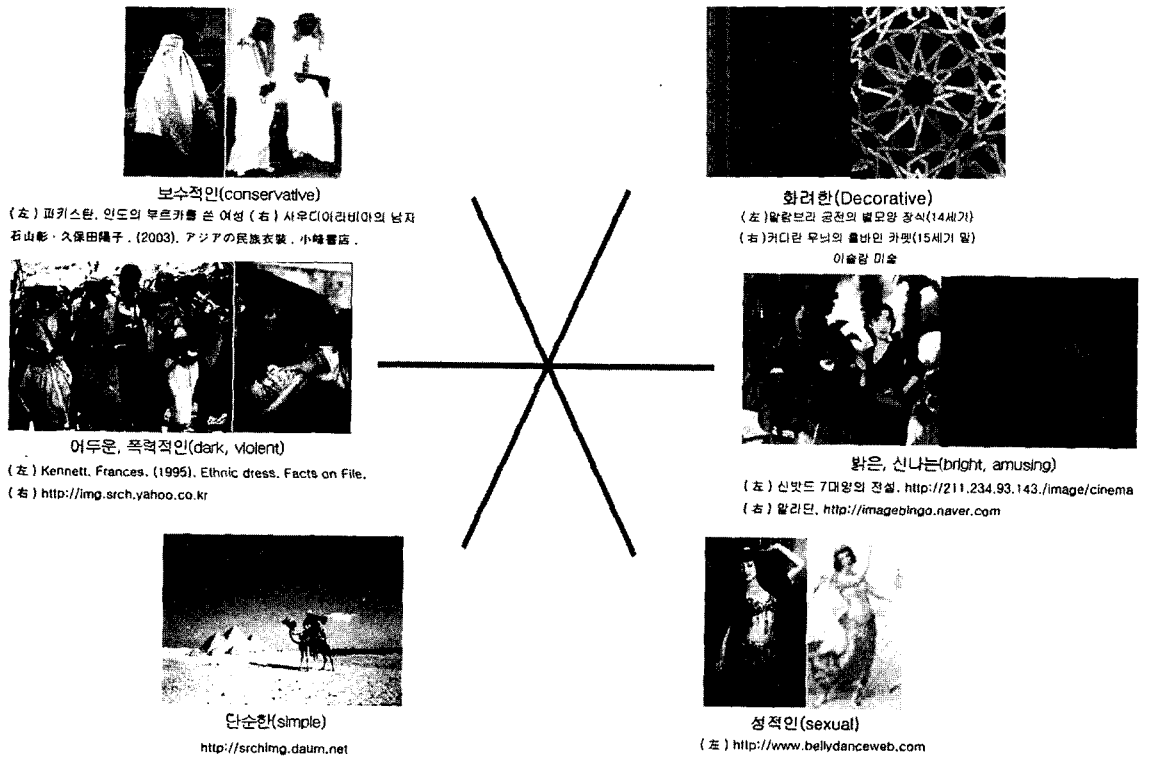
중에서도 문자·식물·기하학적인 모티프가 어울려서 교차된 곡선 가운데 융합되어 가는 환상적인 무늬인 ‘아라베스크(arabesque)’는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 문화에는 동적인 리듬감이 살아있다.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들이 추는 벨리 댄스(belly dance)는 사막지대에 사는 민족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몸통(belly)과 허리를 흔들거나 비트는 춤이다. 그들은 대부분 가수들의 가성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조용한 가락에 맞추어 다양한 신체의 포즈와 정열적인 움직임으로 구성되는 춤을 반복한다(A라시네, 石山 彰, 1993).

3) Dark(기아, 테러, 전쟁, 난민) - Bright(모험적인, 이국취미의)

우리는 흔히 이슬람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느껴왔다. 어린 시절에 접한 「신밧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알라딘과 요술램프」와 같은 동화들은 우리에게 이국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탄을 주었고 우리들을 모

<표 1> 이슬람의 사회문화적 이미지



협과 신비의 세계로 상상의 여행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매스컴 상으로 접하는 이슬람의 이미지는 사뭇 다르다. 미국 9.11 테러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전(聖戰)이나, 종교의 탈을 빌린 폭력이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는 ‘오른손에 꾸란, 왼손에 칼’이란 말과 함께 이슬람교가 폭력을 일삼는 종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헐리웃 영화에도 그대로 나타나, 테러와 잔인한 폭력을 일삼는 모슬렘들을 그린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650만 명에 이르는 난민, 1,000명당 152.8명이라는 유아사망률(세계1위), 평균수명 세계 최저(45.4세), 1,000만개에 가까운 매설지뢰, 100만 명에 이르는 기아, 테러의 온상 등(권삼윤, 2001)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이슬람 사회에는 다양한 어두운 이미지가 존재한다.

이상을 이미지 맵으로 작성하면 <표 1>과 같다.

### 3. 이슬람의 민족복식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이슬람의 복식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그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표면 장식적인 복장

이슬람 복식에 나타난 표면 장식적인 요소는 카우나케스(kaunakes), 프린지(fringe), 드레이퍼리(drapery), 자수 등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카우나케스란 고대 슈메르,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등지에서 보이는 털이 긴 소재를 사용한 권의(卷衣)를 말한다. 보통 스커트와 같이 허리 밑 부분에 둘러 입거나 왼쪽 어깨에 걸쳐 입었는데, 왕과 귀족의 것은 그 길이가 길었고 노예나 군인의 것은 짧았다. 처음에는 양털이 붙어있는 양가죽으로 만들었으나 차츰 양가죽 대신 직조된 천에 프린지를 대어 장식하였다(Phyllis Tortora, Keith Eubank, 1998). 또한 자수 장식의 예로는 메디안 드레스(Median dress)와 페르시아인 드레스(Persian dress)를 들 수 있다(R·타·나·ウイル코ックス, 石山 彰, 1989). 이들 드레스는 고대 페르시아인 및 메디아인이 입은 드레이퍼리된 로브(robe)식의 긴 옷으로, 복숭아 뼈까지 내려오는 하의 부분과 케이프형의 상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은 드레이퍼리가 있으면서 치켜 올라갔고 몸통부분은 몸에 꼭 맞으며 팔을 덮고 있는 소매 부분은 등근

케이프형이다. 그리고 소매의 뒤쪽 팔꿈치에서 4개의 드레이퍼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허리띠로 묶어 여민다(장영세, 2003). 그 곳에 장식한 아름답고 다채로운 자수는 이슬람 복식의 독특한 화려함을 강조하고 있다.

#### 2) 실용적인 외의(外衣)

이슬람 지역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인 외의(外衣)가 남녀 모두에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고대 복식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고대 페르시아시대에 왕과 귀족이 착용했던 공복으로 캔디스(kandys)가 있다. 이는 판초(poncho)형의 로브(robe)로 견과 얇은 울이 소재이며 허리에서 벨트를 묶는 형태이다. 또한 기원전 8세기 말경 팔레스티나로부터 앗시리아로 조공 온 사신의 모습에도 다양한 외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대개 카프탄(caftan)형, 판초형, 쇼(shawl)형의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R·타·나·ウイル코ックス, 石山 彰, 1989). 이들 모두 튜닉 위에 입었으며,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기 전에 자연환경에 장시간 신체가 노출되는 여행을 할 경우에 다양한 용도로 착용하였다.

현대 복식에서도 다양한 외의가 존재한다. 우선 이슬람의 남녀는 평상시에 ‘도우브(thawb)’라는 긴 원피스 위에 ‘질바브(jilbab)’를 공통적으로 착용한다. 그리고 남자용으로 ‘비쉬트(bisht)’라는 겹옷이 있다. 이슬람 남자들이 ‘도우브’ 위에 걸치는 직사각형의 큰 망토인 ‘비쉬트’는 유목 생활의 기동성에서 생겨난 의복으로, 사막여행에서 휴식시 긴요하게 사용된다. ‘비쉬트’는 겨울용과 여름용이 있는데 겨울용은 거칠고 질긴 직물로 만들고 여름용은 보다 의례적인 복장으로서 가볍고 울이 미세하며 반투명한 직물로 만드는데, 이는 비를 막거나 잠잘 때 온몸을 덮는 용도로 이용된다(손주영, 김상태, 2002). 그리고 남자는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는 긴 원피스인 ‘즈븐(zibum)’ 위에 ‘밋슈라(mishlah)’를 걸친다.

여성용 겹옷으로는 ‘질바브’ 외에도 망토형의 ‘아바(aba)’, ‘차도르’, 베일형의 ‘히잡(hijab)’, ‘루싸리’ 등이 있다. 이슬람교의 계율에 “여성은 얼굴과 머리와 귀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어, 외출 시에 ‘차도르’를 머리부터 완전히 덮어 망토같이 착용한다. 이는 건조 열대라는 기상 조건상 직사광선에서 몸을 보호하고 모래먼지를 막으며, 추위를 피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의복이다(라사라, 2000). 그리고 한 장의 원단으로 기묘하게 몸을 감고 있는 모습에는 여러 다른 실루엣과 드레이프가 표현되어 있어 색다른 멋을 나타내기도 한다.

### 3) 바지 스타일의 보급

흔히 바지를 지칭하는 ‘파자마(pajamas)’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온 말로 pā (ē)는 다리를 의미하며, jā mah는 의복을 의미한다(조규화, 1987). 이렇듯 페르시아인은 바지의 기원을 이루는 곳으로 중앙아시아의 한랭한 고원지대에 생활하고 있었던 때부터 튜닉과 바지를 착용하였다.

페르시아인의 바지는 일반적으로 몸에 꼭 끼며, 바지자락은 좁고 발목까지 온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슬람 지역의 바지는 부풀린 헐렁헐렁한 스타일이다. 이는 ‘샤르왈(salwar·chalwar·salwar·shalwar)’이라 불리는 의복으로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넓고 종아리 부분을 좁게 조인 형태이다(ブリュノ・デュ・ロゼル, 西村愛子, 1995). 이란·터키·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인도·네팔·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예전 실크로드 주변 촌락 등의 이슬람 문화권 민족의 일상복으로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주 오래 전부터 착용되어 온 바지의 일종이다(박춘순, 1998).

이 ‘샤르왈’의 명칭과 형태는 민족과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지극히 간단한 모양으로 폭이 대단히 넓어 치마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대부분의 지방에서 상당히 발달된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박춘순, 1998). 그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 베드윈 여자는 복부 아랫여성보다 짧은 옷을 종아리 길이의 샤르왈과 함께 입기도 한다(Kennett, Frances, 1995).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렘 팬츠(harem pants)’는 이슬람 지역에서 여성들이 생활하는 방을 가리키는 말인 ‘하렘’에서 유래한 것으로, 허 부분이 헐렁헐렁하고 발목 부분은 개더로 조인 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슬람 문화권의 일상복이 된 바지는 형태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다양하게 응용하여 착용하고 있다.

### 4) 다양한 형태의 두식(頭飾)

이슬람 지역에서는 고대로부터 다양한 두식을 착용하였다. 그 예로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시대에는 양모에 자수와 보석, 깃털로 장식한 왕관형 두식이 있었으며(R·타우·너·ウイル코ックス, 石山 彰,

1989), 페르시아의 두식은 터번, 즉 원추형 모자의 기원이 된다.

현대 역시 지역과 신분 등에 따라 그 형태와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슬람 전역에 걸쳐 두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타입이 있는데, ‘샤시’라 불리는 긴 천을 머리에 둘둘 마는 스타일과 ‘쿠피야(Kufiyyah)’라 불리는 천을 쓰고 그 위에 ‘아가일(Igaal)’이라는 헤어 밴드로 고정시키는 스타일, 그리고 ‘터번(turban)’을 높이 두르는 스타일로 분류된다. 또한 평상시에는 쓰지 않지만 ‘페즈(feز)’라는 작은 양동이 형태의 두식이 있는데, 빨간 펠트로 만들며 뒤에 검정색이나 파란색의 술을 단다(石山彰·久保田陽子, 2003).

여성의 경우 길이에 따라 혹은 신체의 어느 정도까지 덮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흔히 베일로 통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막지대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외의의 기능도 겸하기도 한다. 우선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형태의 것을 ‘차도르’, 혹은 ‘부르카(burqu)’라 부르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또한 얼굴만을 내 놓고 목 부분에서 고정시키거나 안쪽에서 손으로 붙잡는 스타일의 것도 있다. 이를 이란에서는 ‘차르샤프(carsaf)’, 아라비아 반도의 국가에서는 ‘아바’, ‘가라베이야’ 등으로 부른다. 이러한 의상은 다양한 색깔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검은 색이며 실크나 양모 등의 천으로 만들어진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시각적 특성과 그 자료를 간추리면 <표 2>와 같다.

## III. 이슬람풍 패션의 유행배경 및 미적 특성

### 1. 이슬람풍 패션의 유행배경

9. 11 테러사건과 이라크 전쟁 이후 이슬람 문화는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 범위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면 2001년 영화 「칸다하르(Kandahar, 이란/프랑스)」가 칸느와 몬트리올 국제 영화제 수상과 함께 타임지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되면서 이슬람 문화에 알리는 계기를 형성했다. 그 후 팝페라(popera)의 선두주자 사라 브라이트만(Sarah Brightman)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이슬람풍의 의상을 선보였고 동양의 신비와 이국적인 멜로디를 접목시킨 신곡 ‘하렘’을 통해 이슬

<표 2> 이슬람 민족복식의 특징

특징	시각자료	시각적 특징
<p>표면장식적인 복장</p>	 <p>&lt;kandys&gt; ファッションの歴史</p> <p>&lt;kaunakes&gt; Historic Costume</p> <p>&lt;fringed tunic&gt; モードの歴史</p> <p>&lt;fringed skirt&gt; Historic Costum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털이 긴</li> <li>· 프린지 장식의</li> <li>· 자수가 놓인</li> </ul>
<p>실용적인 의의</p>	 <p>&lt;tunic과 poncho형&gt; ファッションの歴史</p> <p>&lt;tunic과 caftan형&gt; ファッションの歴史</p> <p>&lt;tunic과 caftan형&gt; 世界の服飾</p> <p>&lt;shawl형&gt; 世界の服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르기</li> <li>· 뒤덮기</li> <li>· 감기</li> </ul>
<p>바지스타일의 보급</p>	 <p>&lt;다양한 형태의 사르왈(salvar)과 하렘팬츠(harem pants)&gt; ファッションの歴史, 世界の服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풀린</li> <li>· 험렁험렁한</li> <li>· 발목 부분을 조이는</li> </ul>
<p>다양한 형태의 두식</p>	 <p>터번(turban) ファッションの歴史</p> <p>티아라(tiarra) ファッションの歴史</p> <p>차도르(chador) Ethnic dress</p> <p>쿠피야(Kufiyah)와 아가일(Iqaal) Ethnic dress</p> <p>페즈(fez) 世界の服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기</li> <li>· 두르기</li> <li>· 가리기</li> </ul>

람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역시 이라크 전쟁 이후 좀더 깊고 넓게 이슬람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우선 신문 기사 “이라크인의 사고와 행동 ‘명예’를 중시하는 순박한 사람들”(조선일보 2003, 11. 10)에서는 이라크인들의 생활상에 관해 다루었고,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 끝났다”(조선일보 2003, 11. 24)에서는 국내에 체재하는 이슬람교도인들의 종교행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Q채널에서는 “아시아 푸드 스토리”(2004년 1월 1일 방송)라는 제목으로 아시아의 전통요리를 소개하면서 이란의 사파비 왕조 왕족들이 먹었던 음식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슬람 문화가 언론매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문화와 접목을 시도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그 예로 무용가 최경실은 터키민요 ‘무스크다라’와 80년대 아랍음악을 대표하는 ‘라이(Rai)’에 전통 한국 무용을 접목한 ‘아랍 음악과의 만남’ 공연 기획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심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문화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이슬람 문화를 직접 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슬람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와 함께 이슬람의 전통 춤인 ‘밸리 댄스’가 대담한 의상과 허리와 힙을 이용한 몸

동작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배꼽이 떨어지면 관능이 깨어난다” 일간스포츠 2003, 2. 28). 더욱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밸리 댄스를 배우려는 움직임(“밸리 댄스, ‘배꼽’ 하나로 관능·건강 동시에” 굿데이 2002, 12. 31)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이슬람풍 패션의 미적 특성

이상의 경향을 배경으로 하여 패션에서는 “전쟁이 지나간 후 바그다드 바지 세계점령(경향신문 2003, 5. 11)”, “전 세계 문화트렌드는 아라비아풍 ‘하렘’(일간스포츠 2003, 5. 30)”, “패션의 관점에서 본 문화트렌드 ‘하렘’(삼성디자인넷 2003, 6. 5)”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슬람 풍 패션은 2002년부터 여름부터 그 이듬해 여름을 절정으로 하여 컬렉션에서부터 거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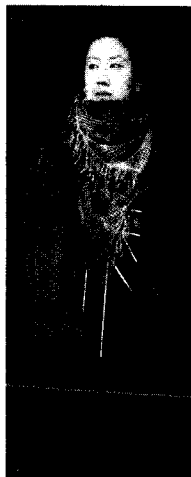
또한 2003년 춘하 컬렉션에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이슬람을 이미지로 한 스타일을 발표한 바 있으며,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크리스티앙 디오르 컬렉션에서 ‘스트리트 슈크(Street Chic)’란 주제 하에 아라비아 유목민의 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스타일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요지



<그림 1> Guerriero, Fashion Show, (p. 216) (03/SS)



<그림 2> Alexander McQueen, Fashion Show, (p. 216) (03/SS)



<그림 3> 아프간마키 (アフガン巻き) Street jack, 2004. 4 (no. 59) (p. 184)



<그림 4> 아프간마키 (アフガン巻き), Seda, 2002. 2 (p. 24)



<그림 5> 하렘팬츠 <www.samsung design.net>



야마모토(Yohji Yamamoto),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발렌티노(Valentino) 등의 디자이너들이 이슬람을 이미지로 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소매와 허리부분에 레이스 장식을 달거나 고무줄로 조여 주름 장식한 블라우스와 바지 밑단을 끈으로 조인 ‘하렘 팬츠’ 등과 같은 이슬람풍 장식과 관련 의상들이 인기를 모았다. 또한 이슬람풍 액세서리도 인기를 모았는데 커다란 펜던트 목걸이와 링 귀걸이, 엔틱 스타일의 치렁치렁한 가죽 벨트 등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목도리란 뜻의 ‘아프간마키(アフガン巻キ)’가 젊은 남녀 모두에게 크게 유행했는데, 이는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을 목과 어깨에 목도리와 솔처럼 착용한 것으로 두르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었다(그림 1-5).

본 장에서는 II장의 2절에서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이슬람 문화의 이미지 및 3절 이슬람의 민족복식에서 추출한 이슬람 복식의 시각적 특성을 토대로 하여, 9.11테러가 일어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발표되었던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 분석을 통해 이슬람풍 패션의 미적 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표 3).

1) 울동성

이슬람 민족복식에는 표면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 한다. 그 중 고대 이슬람 복식에 나타나는 프린

지 장식이나 다양한 외의(外衣)에서 형성되는 드레이퍼리 등은 그것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역시 이슬람 복식 특유의 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 같은 특성은 앞서 분석한 이슬람 문화의 양면성 중 Decorative(화려한, 사치스러운, 동적인) 및 Bright(모험적인, 이국취미의)에 해당되는 이미지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슬람 복식의 미적 특성을 울동성이라 명명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들이 추는 발리 댄스의 경우, 가락에 맞추어 표현되는 다양한 신체의 움직임, 그리고 그와 함께 흔들리는 의복 장식들에는 어떤 울동성을 느낄 수 있다.

컬렉션에 나타난 울동성은 광택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드레이퍼리를 표현하거나 프린지나 액세서리의 부속 등을 움직임을 표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예로 요지 야마모토는 2002년 춘하 컬렉션에서 이슬람의 전통의상인 ‘샤르왈’의 허리선에 드레이퍼리를 줌으로써 울동성을 나타냈다(그림 6). 그런가 하면 기 라로쉬(Guy Laroche)는 드레이퍼리와 함께 허리벨트, 팔찌를 이용한 울동성을 표현했으며<그림 7>, 그 외 프린지 장식을 이용하기도 하였다(그림 8).

2) 은폐성

이슬람 민족 복식에는 긴 원피스형, 망토형, 그리고 베일과 같이 한 장의 천으로 감싸도록 되어 있는 형 등 문화와 지역에 따라 외의의 다양한 형태와 작



<그림 6> Yohji Yamamoto, Mode et Mode, No. 317 (p. 25)(02/SS)



<그림 7> Guy Laroche, Fashion Show (p. 382) (03/SS)



<그림 8> Fred Sathal, Fashion News, vol.84 (p. 91) (03/SS)



<그림 9> Haider Ackermann,  
Fashion Show (gap)  
(p. 314), (0304/AW)



<그림 10> Alexandre  
Herchovitch, Fashion Show  
(p. 327) (03/SS)



<그림 11> Lutz, Fashion  
Show  
(p. 127), (03/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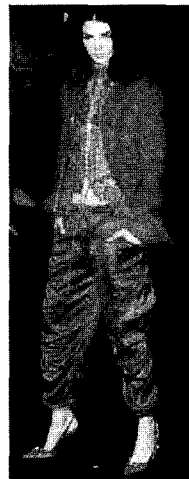
<그림 12> Tom Ford,  
Mode et Mode(p. 90),  
(0304/AW)

장법이 존재한다. 이는 사막지대라는 자연환경 하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 외에도 종교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이슬람 특유의 복식문화라 할 수 있다. 특히 ‘하렘’이라는 여성을 격리시키는 관습과 함께 베일을 둘러싼 이슬람 여성의 모습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이슬람 사회의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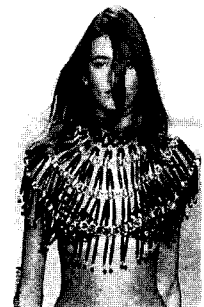
이상의 특성은 이슬람 문화의 양면성 중 Authentic (보수적인, 금욕적인), Simple(단순한, 정적인), Dark (기아, 테러, 전쟁, 난민)에 해당하는 이미지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은폐성이라 명명하였다. 컬렉션에 나타난 은폐성으로 이슬람 여성의 베일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 실제 이슬람 여성의 베일이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형태에서부터 얼굴을 드러내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처럼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역시 각양각색이다. 그 예로 <그림 9>는 후드를 단 망토형 외의에 프린지 장식으로 이슬람의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그림 10>은 모자에 시스루(see-through)의 베일을 연결하여 보수적이면서 관능적인 이슬람의 양면적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였다. 그 외 <그림 11>은 이슬람의 베일을 스포츠 룩으로 표현한 예로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3) 관능성

흔히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알라딘(Aladdin, 1992년 개봉)», 「신밧트 : 7대양의 전설(Sinbad: Legend of the Seven Seas, 2003년



<그림 13> Gian Franco  
Ferre, Mode et Mode  
(p. 161), (0304/AW)



<그림 14> Paco  
Rabanne, Beauty  
Collection. Vol. 01  
(p. 198), (03/SS)

개봉)」 등에 나타난 여 주인공들은 시스루 소재나 브레이지어와 하렘 팬츠 등과 같이 노출이 심하고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된 의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슬람 문화 속에 나타나는 양면성 중 Sexual(외설적인, 성적인), Decorative (화려한, 사치스러운, 동적인)에 해당되는 이미지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관능성이라 명명하였다.

컬렉션에 나타난 관능성 역시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의 여주인공과 같은 이미지가 특징인데, 그 대부

<표 3> 이슬람 패션의 특징

이슬람 문화 이미지		이슬람 민족복식의 시각적 특징		디자인 특성		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corative (화려한, 사치스러운, 동적인)</li> <li>Bright (모험적인, 이국취미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털이 긴</li> <li>프린지가 달린</li> <li>폭이 넓은</li> <li>부풀린</li> <li>프린트가 있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택있는 소재</li> <li>드레이퍼리</li> <li>프린지장식</li> <li>액세서리 (허리벨트, 팔지 등)</li> </ul>	⇒	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uthentic (보수적인, 금욕적인)</li> <li>Simple (단순한, 정적인)</li> <li>Dark (기아, 테러, 전쟁, 난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르기</li> <li>뒤덮기</li> <li>감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몸 전체를 덮는 베일</li> <li>어두운 색상</li> </ul>	⇒	은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xual (외설적인, 성적인)</li> <li>Decorative (화려한, 사치스러운, 동적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나체의</li> <li>화려한</li> <li>동적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식 브라탑</li> <li>화려한 색상</li> <li>시스루 소재</li> </ul>	⇒	관능성

본이 화려한 색상에 대담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그 예로 2003년 추동컬렉션에서 톰 포드(Tom Ford)는 화려한 장식의 브라 탑(bra top)과 각선미를 그대로 드러낸 랩 스커트(wrap skirt)로 이슬람풍의 이미지를 나타냈다(그림 12). 또한 장 프랑코 페레(Gian Franco Ferre)는 시 스루 소재의 상의에 주름 장식된 하렘 팬츠를 조화시켰으며<그림 13>, 파코 라반(Paco Rabanne)은 상체를 덮는 액세서리 사이로 금속 소재의 브레이지어를 비쳐 보이게 함으로써 독특한 이슬람풍 이미지를 표현했다(그림 14).

이상의 내용을 간추리면 <표 3>과 같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2001년에 일어난 미국의 9.11 테러와 그로 인한 미국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급증한 이슬람 패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우선 이슬람 용어를 정의하고 이슬람 문화가 갖는 이미지를 간추려 보았다. 그리고 이슬람 복식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최근 등장한 이슬람풍 패션의 유행 배경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를 통해 이슬람 복식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이슬람풍 패션 디자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이슬람이란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독자적인 문화 복합체로서의 이슬람 문명권을 가리키며, 다양한 문화의 수용 및 혼합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이슬람 문화에는 보편성과 국제성과 함께 양면성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면성을

가장 큰 문화적 특징이라 보고 그에 따른 이미지를 ‘authentic(보수적인, 금욕적인)-sexual(외설적인, 성적인)’, ‘simple(단순한, 정적인)-decorative(화려한, 사치스러운, 동적인)’, ‘dark(기아, 테러, 전쟁, 난민)-bright(모험적인, 이국취미의)’로 분류하였다.

또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슬람 복식의 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표면장식적인 복장으로, 카우나케스, 프린지, 드레이퍼리, 자수 등과 같은 장식적 요소들이 이슬람 특유의 화려함을 나타낸다. 둘째 실용적인 외의로, 이슬람 지역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실용적인 외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막지대라는 자연환경 하에서 신체 보호의 역할 외에도 여성의 경우 순결을 의미하는 종교와 관습상 의미까지 포함한다. 셋째 바지스타일의 보급으로, 이슬람 지역은 바지의 기원을 이루는 곳에 걸맞게 아주 오래 전부터 남녀노소 상관없이 바지가 일상복으로 착용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에는 ‘샤르왈’, ‘하렘 팬’와 같이 바지의 형태가 다양하게 응용되어 착용되고 있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두식으로,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신분에 따라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슬람 전역에 걸쳐 두식이 다양하게 나타나 왔다.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준 9.11 테러와 미국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현재 이슬람은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까지 이르렀다. 패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밀리터리 룩과 함께 테러와 전쟁 등 불안감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에 이슬람을 이미지로 한 디자인으로 안정

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불어넣고자 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컬렉션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으로도 인기를 모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되었던 컬렉션에 나타난 이슬람풍 패션의 미적 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울동성으로, 광택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드레이퍼리를 표현하거나 프린지 장식, 액세서리의 부속 등으로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둘째 은폐성으로 이는 대부분 이슬람 여성의 베일을 이미지로 하였는데, 실제 이슬람 여성의 베일이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형태에서부터 얼굴을 드러내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처럼 망토형 천에 프린지 장식을 하거나 시스루 소재를 이용한 것, 혹은 스포츠 룩으로 표현한 것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관능성으로, 이는 흔히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것이 특징이다. 시스루 소재, 노출이 심한 브레이지어와 하렘 팬츠, 바디 컨서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1세기 패션은 첨단 과학 소재와 디자인으로 미래를 예시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의 문화에서 이미지를 얻는 에스닉 룩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갈 것이다. 특히 오리엔탈리즘은 각박한 사회에 안정감과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테마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해지리라 생각한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본 연구가 그동안 경시되어 왔던 이슬람 지역의 복식문화 및 그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 디자인 연구의 한 예로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가토 히로시. (1948). 남규형, 조형렬 옮김. (2001). *이슬람 그들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고도.
- 권삼윤. (2001). *자존심의 문명, 이슬람의 힘*. 동아일보사.
- 김동문. (2001). *이슬람의 두 얼굴*. 예영 커뮤니케이션.
- 김문영, 조우현. (2003). 유라시아 지역 바지 구조의 계보. *복식학회*, 53(7), 95-109.
- 김정위. (1981). *이슬람 문화사*. 대학예술사.
- 라사라교육개발원 저. (2000). *(축제·종교·결혼의상)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 -The world of folk costume-*. 라사라 패션정보.
- 류기주, 김민자. (1992).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고대이집트에서 낭만주의시대까지-. *한국의류학회*, 16(4), 357-369.
- 박금주. (1992). 팔레스타인 여성 복식 고찰. *한국복식학회*, 19, 195-207.
-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민속원.
- 손주영, 김상태. (2002). *중동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오름.
- 윤명자. (1992). *현대 패션의 Orientalism-80년대 파리 프레타 포르테 콜렉션들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윤영관. (2001). *(나를 사로잡은)이슬람*. 김영사.
- 이남희. (1978). 고대서아시아의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12(1), 1-15.
- 이유순. (2003, 4. 3). 전쟁과 패션-「패션 코드의 형성」.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3, 9. 7,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이희수, 이원삼 외. (2003). *이슬람*. 청아출판사.
- 장영세. (2003). 페르시아 복식 중 Kandys와 Persiandress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7(2), 15-25.
- 정수일. (2002). *이슬람문명*. 창작과 비평사.
- 조너선 블룸, 세일라 블레이어. (1997). 강주현 옮김. (2003). *이슬람미술*. 한길아트.
- 조규화. (1987). *복식미학*. 수학사.
- 최영길. (2000). *이슬람 문화*. 알림.
- 한국이슬람학회. (2002). *끝나지 않은 전쟁*. 청아.
- 황춘섭. (1986). *민속의상*. 수학사.
- 石山彰, 久保田陽子. (2003). *アジアの民族衣装*. 小峰書店.
- ブリュノ・デュ・ロゼル, 西村愛子. (1995). *20世紀のモード史*. 平凡社.
- 千村典生. (2001). *ファッションの歴史*. 平凡社.
- A・라시네, 石山彰. (1993). *世界の服飾(1)-民族衣装2*. マール社.
- James Laver, De LA Haye, Amy, Tucker, Andrew. (2002). *Costume & fashion*. W W Norton & Co Inc.
- Kennett, Frances. (1995). *Ethnic dress*. Facts on File.
- R・ターナー・ウィルコックス, 石山彰. (1989). *モードの歴史*. 文化出版局.
- Stewart, Desmond. (1998). *이슬람*. 한국일보타임-라이프 편집부.
- Phyllis Tortora, Keith Eubank. (1998). *Historic costume*. Fairchild.